

국제 산업보건 동향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 2009년 4월 발표자료〉

후생노동성, 재택 노인 간병인 종사자의 근로 조건 확보 및 개선 대책 지침 발표

일본 후생노동성(MHLW)에서는 2000년 개호(介護)보험법의 시행 이후, 재택 노인 간병인 업무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사업을 실시한 기간이 짧아 안전보건 배려 의무와 고용 관리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노인 간병인 종사자의 근로조건의 확보·개선 대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발표배경

- 일본의 산업재해에 의한 사상자 수는, 장기적으로는 감소 경향에 있으나, 사회가 점차 서비스 경제화됨에 따라 전 산업의 사상자 수에서 성장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개호보험 : 일본에서 일반 의료보험과 구분하여 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를 전담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시작된 사회보험제도

※ 성장산업 : 최근 발전이 두드러지는 제3차 산업(정보서비스업, 보육업, 노인복지사업 등)

- 타 산업과 달리 성장산업에서는 재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급히 재해 방지 대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성장산업의 하나인 재택 노인 간병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재해의 감소를 위하여 안전보건의 기반을 정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위생 활동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주요내용

- 재택 노인 간병인 종사자의 보건관리 체계에 관한 정비를 위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에 대한 위생관리자 및 산업의의 선임, 위생위원회의 설치, 상시 10인~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위생주진자 선임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고용 시 및 1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 (비정규 근로자 포함한 상시 근로자 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로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조치로는 근로협약에 월 45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무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시간외 근무는 월 4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시간 외 및 휴일근

일본

무가 1개월 당 100시간을 넘고, 피로의 축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의사의 면접 지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 그 밖에 후생노동성에서 권장하는 사항

- 작업 중 요통예방 대책 지침 발표(후생노동성 지침, 1994. 9. 6)
 - 일본에서 연간 6,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후생노동성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고 있는데 환자를 움직일 때에는 개인작업보다 공동작업으로 실시할 것, 작업표준을 정할 것, 작업자의 키에 맞도록 설비를 개선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대책의 홍보 실시
 -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사람에게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룹으로 매우 작고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으며 전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토, 대변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염되므로 질병이 있는 사람을 간호할 때나 환자와 식품, 기구 등을 함께 사용했을 경우, 주의가 요구되며 노인 간병인 종사자는 더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를 교환한 후, 식사 전 또는 음식 준비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재택 노인 간병 서비스업의 모델 안전위생 규정 및 해설 보급
 - 재택 노인 간병 서비스업의 안전보건 활동의 공통적인 관리기준으로서 「재택 노인 간병 서비스업의 모델 안전보건 규정 및 해설」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노인요양 작업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감염증의 예방대책, 정신보건, 보호구 사용, 재택 노인 요양 서비스업의 재해 사례 등을 수록하고 있다.

* MHLW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출처〉 <http://www.mhlw.go.jp/stf/seisaku/seisaku/gyousei/anzen/0503-1.html>

국제 산업보건 동향



EU

〈유럽산업안전보건청 2009년 10월 6일 발표자료〉

유럽산업안전보건청, 유럽 지역의 산업안전보건 현황에 대한 의식 조사 실시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CHA)에서는 올해 유럽 지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안전보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경제위기가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최근의 안전보건상의 개선 상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유럽 지역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가 적절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견조사 개요

- 유럽지역의 안전보건 관련 현황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 27개 EU 회원국에서 설문조사 기관인 TNS가 폭넓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 대상은 18세 이상의 EU 회원국 국민으로 자국어를 사용하는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은 네덜란드, 헝가리, 그리스 및 벨기에를 제외한 각각의 EU 회원국로부터 대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데이터의 수집은 EU의 19개 국가에서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실시하고,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루마니아에서는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 표본 규모 : 27,106건의 설문조사 실시(국가 당 약 1,000건의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09년 3월 24일 - 5월 12일(약 45일간)
- 오차범위
 - 0.3~0.6 퍼센트 포인트(EU 27개국)
 - 1.4~3.1 퍼센트 포인트(국가 표본)

■ 설문조사 주요 항목

- ① 귀하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아래 항목 중 귀하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요?(2개까지 선택 가능)
 - 급여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 직업 안정성 / 근로시간 / 기타 / 상기항목에 없음 / 모르겠음 / 무응답
- ②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불건강 상태가 직업에서 기인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크다 / 꽤 크다 / 크지는 않다 / 전혀 없다 / 모르겠음 / 무응답

 EU

③ 귀하의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안전보건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매우 개선됨 / 개선됨 / 나빠짐 / 매우 나빠짐 / 모르겠음 / 무응답

④ 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귀하는 잘 알고 계십니까?

- 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잘은 모르겠음 / 전혀 모르겠다 / 모르겠음 / 무응답

⑤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 귀하의 국가 안전보건 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매우 그렇게 생각함 / 어느 정도 그럴 것 / 별로 영향이 없을 것 / 전혀 없을 것 / 모르겠음 / 무응답

■ 각 설문조사 항목별 응답 결과(EU 회원국 평균)

-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전체의 57%가 급여, 53%가 직업 안정성, 36%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23%가 근무시간을 직업 선택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가장 높은 가치로 선택한 국가는 스웨덴(53%)이며, 가장 낮은 가치로 선택한 국가는 루마니아(1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불건강 상태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75%의 응답자가 매우 큰 영향(28%) 혹은 어느 정도 영향(47%)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각 국가별 안전보건 상태 개선에 대해서는 57%의 응답자가 상당히 개선되었거나(9%), 개선되었다(48%)고 응답하였으며, 아일랜드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4%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벨기에의 경우 15%의 응답자만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경제 위기 상태가 안전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전체 응답자의 61%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20%), 어느 정도 알고 있다(46%), 잘은 모르겠다(22%), 전혀 모르겠다(6%)의 비율을 보였다.

* EU-OCHA :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출처〉 http://osha.europa.eu/en/statistics/eu-poll/slides/Package_EU27.pdf

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